



학제에 따른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비교*

함 연 숙¹⁾ · 김 화 순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말한다(Yeun, Kwon, & Ahn, 2005).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및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Yeun et al., 2005).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간호전문직관의 유사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서 간호전문직태도,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자아개념, 간호전문직가치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Choi & Ha, 2009; Yeun et al., 2005).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몰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Han, Kim, & Yun, 2008; Hallin & Danielson, 2008),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도 좋았으며(Han et al., 2008; Hallin & Danielson, 2008),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llin & Danielson, 2008).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관의 긍정적인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신규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간호에 대한 견해나 간호직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로서 간호전문직관은 다분히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이 자신이나 동료 간호사의 간호활동에 있어서 기준과 행동을 평가하는 개념적인 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Schank & Weis, 2001),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 간호사가 어떤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무현장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간호의 미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부 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학의 정체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3년 혹은 4년의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경험을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된다(Kim, 1995; Schank & Weis, 2001). 따라서 3년 혹은 4년의 학사 과정을 모두 이수한 시점에 있는 예비간호사로서 졸업학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간호전문직관은 이후 신규간호사로 현장에 나가 업무 수행능력과 직업 만족 및 조기 이직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사회화 및 전문직 가치와 같은 하위개념이

주요어 : 간호 학생, 간호전문직관,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만족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음

1) 안산대학교 시간강사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khs0618@inha.ac.kr)

접수일: 2012년 6월 3일 1차 수정일: 2012년 8월 6일 2차 수정일: 2012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2일

나 유사개념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과 자기효능감과 중간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고 자기효능감은 전문직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었으며(Kim, 2011), 임상실습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Kang, 2010). 또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Whang, 2006). Ko 등(2011)의 연구에서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r=.66$)가 있었다.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전문직 사회화는 간호사이미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7$)를 나타냈다(Choi & Ha, 2009).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 사회화를 비교한 결과 전문직사회화 점수는 4학년 간호학생에서 가장 높았고 경력간호사보다 신규간호사에서 더 낮게 나타나 전문직사회화는 교육을 통해 발달하기 시작하여 이후 실무 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chank와 Weis (2001)의 연구에서도 4학년 학부 학생보다 실무 간호사의 전문직가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년 혹은 4년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예비졸업 학생들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에서 교육환경과 여건이 서로 다른 학제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며, 하위개념이나 유사개념에 대해 학제 간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도 거의 없었다. 현재 국내 간호 교육체계의 일원화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원적인 학제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으며 모든 3년제가 4년제 학제로의 변화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 학제 변화의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교육이나 시설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학제별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확인 결과는 교육제도 일원화 추진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년제 학제와 4년제 학제 교육과정에서 각각 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학제별 학생교육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년제 졸업학년 학생과 4년제 졸업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제별 졸업학년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

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 학제별 졸업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학제별 졸업학년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에서 차이를 조사한다.
- 학제별 졸업학년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에서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 4년제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과 영향 요인에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3년제의 3학년 학생 255명과 4년제 4학년 학생 207명의 총 462명 이었다. 3년제 학생들의 경우 A시 소재 1개교와 S시 소재 1개교 학생들이었고, 4년제 학생들은 I시 소재 2개교와 S시 소재 1개교 학생들이었으며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다단계 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 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f=0.15$), 검정력 .95, 예측변수 8개로 산출하는 경우 160명이었다.

연구 도구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활동과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Yeu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Yeun 등(2005)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소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an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3년제, 4년제, 전체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83, .84, .84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생들의 임상실습과목,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및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Han, 2000). 본 연구에서는 Cho와 Kang (1984)의 도구와 Lee (2001)의 임상실습만족도 도구를 토대로 Lee, Kim과 Kim (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들의 내용은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3년제, 4년제, 전체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동일하게 .91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포괄적인 판단이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Hong (1995)이 번역하여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역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3년제, 4년제, 전체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87, .85, .86이었다.

●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사고, 생각, 느낌 및 인상의 총합을 가리킨다 (Kotler & Clarke, 1987). 본 연구에서는 Lee, Kim과 Kim (200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고,

본 연구에서 3년제, 4년제, 전체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93, .94, .94이었다.

●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결과이다(Ha, 2000). 본 연구에서는 Ha (2000)이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학과만족 도구 중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만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3년제, 4년제, 전체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91, .92, .92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학제별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와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에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3년제와 4년제 학생들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변수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년제 학생들의 자료는 Ham, Kim, Cho와 Lim (2011)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3년제 학생들의 자료는 비슷한 시점에 경기지역에 소재한 2개 3년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변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각 대학을 미리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다 마친 후에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서명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배부한 총 539부의 설문지 중 479부가 수거되어 8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46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Win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χ^2 test를 사용하였다.
- 학제별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로 구하였다.
- 학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학제별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학제별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년제 학생 255명, 4년제 학생 207명으로 학제별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3년제와 4년제 모두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3년제 학제에서 남학생 비율이 7.1%로 4년제 남학생 3.4%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에서는 3년제 평균연령은 22.6세, 4년제 평균연령은 22.7세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3년제 학생들은 만 21세 이하가 57.3%로 가장 많은 반면, 4년제의 경우에는 22-23세가 70.0%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다. 종교의 경우에는 3년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가톨릭 비율이 낮았으며, 학점 분포에 있어서는 3년제의 경우 4.0이상이 4년제 보다 더 많았다. 진학 동기는 3년제의 경우 높은 취업률과 적성 고려가 많았고, 4년제의 경우 취업률과 주변 권유에 따른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제별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전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4±0.47이고, 3년제 학생이 3.64±0.44로 4년제 학생의 3.4±0.47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4.92, p<.000).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20±0.50이고, 3년제 학생은 3.14±0.70로 4년제 학생의 3.28±0.48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3, p=.003).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각각 3.60±0.45, 3.73±0.53, 및 3.91±0.56이었으며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들의 평균에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학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연령(F=6.81, p<.001), 종교(F=6.63, p<.001), 학과 선택 동기(F=5.45,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년제 대상자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462)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			χ^2	p
		Total	Associate (n=255)	Bachelor (n=207)		
Gender	Male	25 (5.4)	18 (7.1)	7 (3.4)	3.018	.082
	Female	437 (94.6)	237 (92.9)	200 (96.6)		
Ages (yr)	≤21	177 (38.3)	146 (57.3)	31 (15.0)	56.142	<.001
	22 - 23	195 (42.2)	50 (19.6)	145 (70.0)		
	24 - 25	42 (9.1)	24 (9.4)	18 (8.7)		
	≥ 26	48 (10.4)	35 (13.7)	13 (6.3)		
Religion	Christian	152 (32.9)	92 (36.1)	60 (29.0)	9.600	.048
	Catholic	76 (16.5)	30 (11.8)	46 (22.2)		
	Buddhist	35 (7.6)	20 (7.8)	15 (7.2)		
	Other	199 (43.1)	113 (44.3)	86 (41.5)		
Grade point average score	≤ 2.0	2 (0.4)	2 (0.8)	0 (0.0)	13.031	.005
	2.0 - 2.9	35 (7.6)	19 (7.5)	16 (7.7)		
	3.0 - 3.9	354 (76.6)	182 (71.4)	172 (83.1)		
	≥ 4.0	71 (15.4)	52 (20.4)	19 (9.2)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in high school	37 (8.0)	12 (4.7)	25 (12.1)	16.516	.001
	Fitness	130 (28.1)	80 (31.0)	50 (24.6)		
	High employment	189 (40.9)	116 (45.5)	73 (35.3)		
	Recommendation	106 (22.9)	48 (18.8)	58 (28.0)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Participants (N= 462)

Variables	Total M±SD	Associate M±SD (n=255)	Bachelor M±SD (n=207)	t (p)
Nursing professionalism	3.54±0.47	3.64±0.44	3.43±0.47	4.92 (<.0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20±0.50	3.14±0.70	3.28±0.48	-3.03 (.003)
Self-efficacy	3.60±0.45	3.60±0.47	3.60±0.42	0.12 (.906)
Image of nurses	3.73±0.53	3.76±0.54	3.71±0.53	1.01 (.312)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3.91±0.56	3.93±0.54	3.88±0.58	0.86 (.390)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462)

Characteristics	Items	Total M±SD	t or F (p)	Associate (n=255) M±SD	t or F (p)	Bachelor (n=207) M±SD	t or F (p)
Gender	Male	65.92±7.28	1.07	67.50±7.25	0.90	61.86±6.01	1.32
	Female	63.72±8.48	(.301)	65.39±8.03	(.345)	61.75±8.61	(.253)
Ages (yr)	≤ 21	65.53±8.00		65.98±7.88		63.42±8.34	
	22 - 23	61.99±7.90	6.81	62.80±6.50	2.64	61.71±8.35	2.07
	24 - 25	63.00±10.53	(<.000)	67.00±9.17	(.050)	57.67±10.04	(.105)
	≥ 26	65.85±8.53		66.60±8.91		63.85±7.52	
Religion	Christian	65.86±8.21		66.47±8.49		64.93±7.75	
	Catholic	61.25±8.89	6.63	65.03±7.93	0.66	58.78±8.67	6.90
	Buddhist	65.46±10.60	(<.000)	65.35±9.76	(.575)	65.60±11.98	(<.000)
	Other	63.00±7.61		64.95±7.23		60.44±7.38	
Grade point average score	≤ 2.0	62.50±10.61		62.50±10.61		0±0.0	
	2.0 - 2.9	62.83±9.13	.81	66.42±8.26	0.23	58.56±8.45	1.41
	3.0 - 3.9	63.68±8.28	(.487)	65.37±7.97	(.872)	61.89±8.25	(.247)
	≥ 4.0	65.17±8.82		65.90±8.03		63.16±10.68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in high school	62.95±9.05		65.08±7.75		61.92±9.58	
	Fitness	66.32±8.09	5.45	67.82±7.01	3.47	64.00±9.11	1.82
	High employment	63.02±8.13	(.001)	64.15±8.21	(.017)	61.22±7.71	(.145)
	Recommendation	62.58±8.64		65.25±8.35		60.36±8.3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연령(F=2.64, p=.050), 진학 동기(F=3.57, p=.0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4년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종교(F=6.90, p<.000)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순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사이에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다.

학제별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학제별로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 모두에서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간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상관계수의 크기 순서에 있어서도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 모두 간호사이미지가 가장 크고 다음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학제별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요인의 비교

전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종교, 진학 동기와 주요 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학제, 종교, 진학 동기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총 46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진학 동기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진학 동기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총 255명의 자료를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462)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Image of nurses
Associate (n=25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458 (<.001)			
	Self-efficacy	.343 (<.001)	.133 (<.001)		
	Image of nurses	.653 (<.001)	.428 (<.001)	.301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566 (<.001)	.463 (<.001)	.407 (<.001)	.518 (<.001)
Bachelor (n=20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585 (<.001)			
	Self-efficacy	.252 (<.001)	.196 (.005)		
	Image of nurses	.729 (<.001)	.601 (<.001)	.382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657 (<.001)	.586 (<.001)	.403 (<.001)	.630 (<.001)
Total (N=46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465 (<.001)			
	Self-efficacy	.296 (<.001)	.155 (<.001)		
	Image of nurses	.680 (<.001)	.491 (<.001)	.334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603 (<.001)	.506 (<.001)	.403 (<.001)	.570 (<.001)

Table 5.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 462)

Variables	Overall Subject (N=462)						
	B	S.E	β	t	p	Adj R ²	F (p)
Image of nurses	.39	.03	.45	11.64	<.001	.46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22	.03	.27	6.85	<.001	.529	
Education	.19	.03	.20	6.46	<.001	.563	127.50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3	.04	.14	3.63	<.001	.575	
Religion	-.08	.04	-.07	-2.13	.034	.578	
Variables	Associate Subject (n=255)						
	B	S.E	β	t	p	Adj R ²	F (p)
Image of nurses	.37	.04	.44	8.26	<.001	.425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19	.05	.23	3.97	<.001	.493	67.73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3	.05	.15	2.96	.003	.506	
Self-efficacy	.09	.05	.10	2.03	.044	.512	
Variables	Bachelor Subject (n=207)						
	B	S.E	β	t	p	Adj R ²	F (p)
Image of nurses	.41	.05	.46	7.6	<.001	.528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23	.05	.27	4.8	<.001	.592	82.09 (<.001)
Religion	-.13	.05	-.11	-2.5	.012	.60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3	.06	.13	2.24	.026	.612	

분석하였고,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교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종교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총 20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들 사이에 3년제 학생들의 자료의 상관관계는 .13 - .65, 4년제 학생들의 자료의 상관관계는 .20 - .73, 전체 학생들의 자료의 관계는 .16 - .68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3년제 .59 - .82, 4년제 .52 - .99, 전체는 .62 - .98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3년제 1.23 - 1.69, 4년제 1.01 - 1.93, 전체 1.03 - 1.66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교육학제, 임상실습만족도, 종교(가톨릭)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가 46.1%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전공만족도, 간호교육학제, 임상실습만족도, 종교를 포함한 전체 변수가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총 57.8%를 설명하였다.

3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로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42.5%를 설명하였고,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변수가 간호전문직관 전체 변량의 51.2% 설명하였다.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종교(가톨릭)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가 52.8%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전공만족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를 포함한 변수가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총 61.2% 설명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교과과정에서 계획된 임상실습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 있는 3년제 학생들과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형성 영향 요인에서 학제별 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3년제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4년제 예비 졸업생들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연한이 더 길었음에도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3년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 3년제 전체 학년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의 평균은 4년제의 전체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o 등(2011)의 연구보다 높았다.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간호전문직관을 측정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졸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이 드물어 직접 결과를 비교하기는 제한적이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다섯 가지의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단순히 학업년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개념의 총합에 대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간호전문직관에서 학제별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학제별 차이를 보였는데, 4년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3년제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Sung (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서 학제별 차이를 보면, 측정 도구는 본 연구와 달랐으나 4년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3년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개념인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모두에서 3년제 학생들에 비해 4년제 학생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습환경의 경우 4년제는 대부분 학교와 관련된 부속병원이 실습장소이나 3년제는 실습장소 부족으로 여러 병원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3년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습환경 개선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주요 변수였던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자기

효능감에서는 학제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했었던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와 척도에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제한적이나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비교한 Moon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3년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4년제 학생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 대상자는 실습을 모두 마친 졸업반 학생들이나 Moon과 Lee (2010)의 연구에서는 3년제 2, 3학년 학생과 4년제 3, 4학년 학생간의 비교 결과이므로 학생들의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3년제 또는 4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척도를 동일하게 표준화하여 환산하는 경우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의 점수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Kim, 2011; Ko et al., 2011; Kwon & Yeun, 2007). 따라서 대체로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는 학제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학제별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확인 필요하다.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학제별 비교를 살펴보면, 3년제 학생의 간호사이미지 평균은 4년제 학생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제에 따른 비교 결과를 보여준 Yang (2003)의 연구에서는 3년제 3학년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점수의 평균은 4년제 4학년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점수보다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제별로 학생들 사이에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교육연한이 학생들이 갖는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점수보다 약간 낮았다. Kim (2011)의 연구에서 4년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기효능감 평균과 Ha와 Choi (2011)의 연구에서 동일한 학생들을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매년 종적으로 추적하여 측정된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유사하였다. 두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였으므로 자기효능감 점수에서 학제별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년제 학생들의 경우 간호전문직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은 진학동기와 나이 분포였고 4년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종교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년제 학생들의 경우에 종교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는 Ham 등(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에 포함된 학교 중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는 Ko 등(2011)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Ko 등(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변의 권유나 취업이 잘 되어서와 같은 이유보다는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결과인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상관계수의 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간호전문직관은 학제에 상관없이 주요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사이에 상관관계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간호사이미지와 상관계수가 가장 컸던 이유는 서로 문항의 숫자는 다르지만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개념이 부분적으로 간호사이미지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o 등(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하위개념 사이에 작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Kim (2011)의 연구에서도 전문직자아개념은 전공만족도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낮은 상관계수를 보고하였다(Kang, 2010).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에 대한 학제별 차이를 살펴보면, 3년제와 4년제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였다.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결론 도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선행연구 결과(Seo, 2007; Yang, 2000; Ha & Park, 2009)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이었다. Ha와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3년제 재학중인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의 유사개념인 전문직 자아개념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간호사이미지의 경우에는 3년제와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전문직관 변량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두 학제 사이에 10%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관련성의 정도(상관계수)가 3년제의 경우 4년제보다 더 높았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3년제와 4년제에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종교 역시 4년제에서만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는 없었고 본 연구에서 4년제 연구대상에 포함된 학교 중 특정 종교와 관련된 학교가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경우 3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 모두에서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가장 낮았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3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Kim (2011)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자기효능감이 전문직자아개념과 전공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3년제에서만 유의하였던 것은 4년제에 비해 3년제의 경우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상관계수가 더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에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획된 임상실습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남겨둔 시점에 있는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는 차이가 있는지,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에는 학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학제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3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에는 4년제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졸업을 앞둔 3, 4년제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으므로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고 전공과 임상실습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경우 연구에 포함된 4년제 학교 중 특정 종교와 관련된 학교가 있어서 나타난 차이임을 배제할 수 없고 선행연구에서 종교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학제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단순히 1년이라는 기간을 더 공부하는 것만이 간호전문직관을 높여주지는 않으며 다른 요인들이 관여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 연한이 더 길었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Cho, K. J., & Kang, H. S.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 Choi, J., & Ha, N.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 54-63.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 N. S., & Choi, J.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 73-85.
- Ha, N. S., & Park, H. M. (2009). The impact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5(2), 47-56.
- Hallin, K., & Danielson, E. (2008).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 62-70.
- Ham, Y. S., Kim, H. S., Cho, I. S., & Lim, J. Y.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536-544.
- Han, S. J.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132-146.
- Han, S. S., Kim, M. H., & Yun,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73-79.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ang, H. O. (2010).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M. S.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159-167.
- Kim, S. S., Kim, C. J., Lee, W. H., Oh, E. G., Moon, S. M., & Kim, Y. J. (2004).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student nurses and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 317-323.
- Kim, Y. R. (1995).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 169-181.
- Ko, J. E., Kim, M. H., Kim, E. J., Kim, H. J., Eom, J. E., Lee, H. A., et al.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Ewha Nursing Journal*, 45, 29-44.
- Kotler, P., & Clarke, R. N.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 Kwon, Y. M., & Yeun, E. J.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285-292.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 333-348.
-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 219-231.
- Moon, I. O., & Lee, G. W.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83-91.
- Schank, M. J., & Weis, D.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17, 226-233.
- Seo, W. H. (2007).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ung, M. H. (2010).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 90-98.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205-213.
- Yang, J. J. (2000).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 perspectiv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276-286.
- Yang, Y. S. (2003).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nurse image of th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091-1100.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Ham, YounSuk¹⁾ · Kim, HwaSoon²⁾

1) Instructor, Ansan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diploma students and bachelor student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62 nursing students who had completed all clinical practicum courses. Of these students, 255 were from one of 2 diploma degree colleges and 207 were from one of 3 bachelor degree universities. Collected data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ism, nursing image,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esults:** Age, religion, grade point average, motivation for admiss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diploma and bachelor students. Image of nurse,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commo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both groups. Self-efficacy was a significant factor only for diploma degree students and religion was a significant factor only for bachelor degree students. **Conclusion:** For more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by student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hancing positive nurse image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uring the students' period of study.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Self-efficacy, Personal satisfac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waSoon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un-4 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08 Fax: 82-32-874-5880 E-mail: khs0618@inha.ac.kr